

SK에너지, 울산 고교생 31명 장학금 전달

SK에너지 울산 콤플렉스는 SK에너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울산지역 고교생들 31명을 회사로 초청해 12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2월20일 발표했다.

SK에너지 울산 콤플렉스는 회사 본관에서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울산지역 고교생 31명에게 각각 40만원씩 모두 12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박상훈 부사장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한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에너지 울산 콤플렉스는 기업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1970년대부터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약 2000명의 울산지역 학생들에게 6억여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화학저널 2007/12/21>